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군사훈련을 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군사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훈련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복숨바쳐 싸우자!》, 《총포란!》,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눈덮인 산밭들을 뒤흔들며 뒤흔들며 울려 퍼졌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뜻깊은 올해에 부대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싸움준비완성에서 자랑

찬 위훈을 세운 그들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전망대에 오르시어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훈련을 보시고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펼쳐나선 부대군인들의 훈련열의는 비상히 높다고 하시면서 《훈련도 전투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한

번 하여도 실천과 같이 강도높게 진행하는 혁명적훈련기풍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군인들을 높은 군사적자질과 전투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땅크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원장장의 역할을 수행한 류경수105땅크사단은 싸움에서도 근위부대, 사상에서도 근위부대였다고 하시면서 이 빛나는 투쟁전통을 살려 언제나 근위병의 영예를 떨쳐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고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어 사단관하 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교양실, 침실, 세

목장 등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TV와 록화기를 비롯한 문화교양수단들의 리용정형과 침실은도로부터 세목장의 물공급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병사들이 추운 겨울에도 훈훈하게 덥혀진 침실과 모든 문화교양수단들이 갖추어진 교양실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전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 지휘관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사들에게 훌륭

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시는것은 전투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후방공급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날마다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지금 인민군대앞에는 총대로 조국의 통성변영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임무가 맡겨져있다고 하시면서 부대군인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임으로써 조국의 부강변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12월 31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온 한해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어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천만민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새해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

시며 새해를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애국가와 주악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설화와 여성2중창 《새해인사를 드리옵시다》, 혼성6중창과 합창 《변이 나는 내 나라》, 남성독창과 혼성방창 《오늘의 창성》, 민속기악3중주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여성독창 《병사의 발자욱》, 《산으로 바다로 가자》, 설화와 음악 《혁명가》, 여성3중창 《경애하는 그이 품에 안긴 이 행복》, 여성독창과 합창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혼성2중창과

합창 《어버이사랑을 노래부르자》, 색스폰6중주 《주체철 제일이야》, 합창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여성4중창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첼로4중주 《그이의 한생》, 여성2중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합창 《설날》, 설화와 합창 《승리의 길》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장내는 총성의 대하마냥 설레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

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은하수관현악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높게 살리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풍부한 감정정서에 맞는 작품들을 가지고 전투적인 예술창조활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집단으로 되었다

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예술창조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원대한 포부를 안고 불멸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는 비상히 높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보람찬 새해전투에서도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진전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일을 하루 빨리 앞당겨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현안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민족분열의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땅에 또한해가 왔다.

새해 2011년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해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가 바뀌는 분기점에서 새 세기의 지평선을 내다보며 얼마나 통일에 대한 환희와 회열에 넘쳐있었던가.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감격과 흥분은 곳곳없이 사라지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 민족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은 가슴아픈 일인데 세계면전에서 서로 싸우는것은 더욱 참을수 없는 비극이고 수치이다.

예로부터 한강로에서 한파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 리유가 없으며 《적》으로는 더더욱 될수 없다.

우리 민족이 분열된것은 외세때문이며 오늘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도 외세의 전쟁책동의 산물이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불화와 적대의 원인이 될수 없다는것은 이미 현실로 립증되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이 빚어낸 후

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미제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집권 3년사이에 6.15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를 모조리 뒤집어엎고 정세를 전쟁점령의 최극단으로 치달아오르게 하였다.

전쟁은 놀음이 아니며 언어의 유희도 아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참변이 터지면 그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지혜로우며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무엇때문에 서로 반복질시하고 싸우며 살아야 하겠는가.

북과 남이 서로를 헐뜯으며 끝없는 대결과 논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

그러한 소모적인 싸움에 민족의 재부가 헛되어 낭비되는것도 더는 참을수 없다.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것은 우리 겨례에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가장 존엄높고 힘있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자랑될치게 될것이다.

북과 남은 어떻게 하나 6.15의 흐름을 이어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로,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시대적, 민족적사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온 겨례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모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년

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중대제안을 엄숙히 천명한다.

1. 우리는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기질것을 정중히 제의한다.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책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이 지난 3년간의 총화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출로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것이다.

특히 실천과 책임을 가진 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것을 주장한다.

북남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한 좋은 전례가 있고 이미 채택한 훌륭한 원칙과 선언들이 있다.

북과 남이 마주앉으면 오해와 불신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론의될수 있을것이다.

2. 우리는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모두에게 있어서 결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며 그것을 방임한다면 기필코 대재난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 누구도 무사할수 없

으며 여당이라고 안전하고 보수라고 살아남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은 북만이 아니라 남의 각계층을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며 그 주체도 우리 민족이고 덕을 볼것도 온 민족이다.

민족의 대업을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 래일이 더 귀중하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과 정견, 신앙의 차이와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대단합의 견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수 있음을 밝힌다.

은 민족이 목소리를 합치고 지혜와 힘을 총동원할 때 전쟁위험은 가서지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3.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갈것이다.

지금 북남사이에는 민족의 생사존망과 리익,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북과 남은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제이에 진지하게 립해야 할것이며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다.

4. 당면하여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의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제기한다.

비방증상과 자국적인 행동은 북남관계를 해치는 불씨이며 군사적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다.

서로의 비방증상이 람무하고 자국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속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고 설사 마주앉는다고 해도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하여 서로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데 대해 확약하였다.

우리는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비방증상과 자국적인 행동을 이제부터 일체 하지 말것을 호소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의 첫해인 올해에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나가는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와 호소에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적극 호응해나서며 해내외의 온 민족과 정의와 진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 국제기구들, 진보적인민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제100(2011)년 1월 5일
평 양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발표

새해 주제 100(2011)년을 맞으며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공동사설은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21세기의 첫 10년을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내고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주제 99(2010)년은 강성변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였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해에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대변사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우리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당의 위업, 주제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적필승의 군력을 세계의 면전에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우리의 민심은 고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가려는 군민의 의지는 백배해졌다.

공동사설은 지난해의 장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고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이 온 누리에 펼쳐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해는 강성변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이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력사적인 해였다.

지난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극도로 긴장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속에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사상은 공격사상이며 당의 혁명방식도 공격방식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고 전군, 전민을 대담한 공격전으로 이끄신 장군님의 령도적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령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2010년 대고조령도실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령현지지도로 수놓아져 있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년초부터 온 한해동안 최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온 나라의 대고조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당조직원들과 일군들을 발동하고 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

발되도록 하시었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현지도도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따라 혼연일체의 중국방문은 전동적인 조종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정예하는 장군님께서 세해주신 력사의 리정표를 따라 드림없이 전진하리라는것, 이것이 보람찬 지난해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깊이 새긴 신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년대들도 로속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계속 빛날것이다.

새해 주제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라고 하면서 공동사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음 해에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은 후추도 어질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여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은 우리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는 전투적주호를 높이 들고 새해의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동사설은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 경제전선전면에서 일대 공세를 벌일데 대한 문제,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올해의 투쟁과업으로 제기하고 당의 령도적열을 백방으로 높이는것과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나가는것, 선군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공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것을 올해의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방도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해에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란시킨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초는 분노를 자아냈다. 일촉즉발의 참예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사업들이 진행된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사활적인 과업은 없다. 민족주의의 립장, 자주통일의 립장에 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

리 해소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에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력기해나서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어야 한다. 외세의 공조는 전쟁의 기, 당국의 길이다. 온 민족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 그와 야합하여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는 친미호전분자들의 범법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공동사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없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동사설은 김일성동지의 100년사를 총화하는 오늘날처럼 민족의 존엄이 높이 떨치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미래에 대한 신심이 뜨겁게 솟아올랐을 때는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리념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억세게 전진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동사설은 끝으로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에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사설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

얼마전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들을 담은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연합성명은 북과 남사이의 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데 대한 문제,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란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것이라는 문제, 당면하여 북남관계개선이라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서로의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 등 4가지 중대제안을 천명하면서 민족의 당국, 정당, 단체들이 이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새해정초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천명한 중대제안은 지금 온 겨레를 크게 격동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이번에 공화국에서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공동사설이 발표된 직후 중대제안을 담은 연합성명이 채택된것은 최악의

지경에 이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우에서 하나의 피를줄을 이어받으며 화목하게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돌로 갈라진 때로부터 6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는 분렬을 이제 더는 다른 세대에, 다음 년대에 무한정 넘길수 없다.

하기예 공화국은 새해공동사설에서 새로운 10년대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일 의지를 천명하였다.

남조선에서도 새로운 10년대를 주목하는 신년의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다.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하는것은 조성된 현 북남관계의 현실이 더욱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였다. 다치면 더질듯 한 맹맹한 전쟁기운이 삼천리강도를 무겁게 짓누르고있다.

이에 대해 온 겨레가 위구를 표시하고 세계도 조선반도의 긴장국화를 막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데 대해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이런 속에서 대화와 평화, 통일 의지를 밝힌 공화국의 연합성명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민족과 평화, 통일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애국의 호소이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열쇠는 우리 민족에게 있고 그 해결방도는 첫째도 둘째도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

북과 남이 대결상태를 지속하여 얻을것은 서로의 불신의 중대이고 참혹한 전쟁의 재난밖에 없다.

이제는 더이상 동족대결을 지속시킬수 없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런데로부터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연합회의를 긴급소집하고 당측은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중대제안을 담은 연합성명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없고 오직 민족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늘의 존엄한 사태를 타개해나가려는 성의와 열정, 의지만이 차넘칠 뿐이다.

연합성명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천명한것은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데 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가 더 악화되어 전쟁

이 터진다면 피해를 볼것은 어느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온 민족이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것은 민족의 피가 흐르는 모든 조선사람들, 북과 남의 당국과 모든 정당, 단체들의 회피할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이다. 누구도 오늘의 조선반도현실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다.

진심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밝은 래일을 희망하는 사람이란 그가 누구이든, 어떤 단체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마주앉아 적극 대화하고 협상하며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란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것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과 의지의 발현이다.

연합성명은 특히 선군과 책임을 가진 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것을 남측에 중요하게 제의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대결국면을 타개해나가는데서 북남당국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남사이에는 지난 시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간 좋은 전례가 있고 이미 채택한 훌륭한 원칙과 선언들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과거보다 오늘과 래일이 더욱 소중하다. 민족의 밝은 래일을 위해 남측당국도 이제는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불미스러운 대결상태를 앞으로 도 지속시키겠느냐 아니면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것인가 하는 운명의 기로에서 더이상 방황하거나 주춤하여서는 안된다. 북과 남의 당국은 민족을 위해 결단코 마주앉아야 하며 여기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해결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시대적요구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나라안팎의 정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에서 천명한 애국의 중대제안들에 하루빨리 성의있게 응해나올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촉구하고있다.

겨레의 기대와 시대와 력사의 부름같이 모두가 각성하고 통일에국의 열의를 드높여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색과 노력을 합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백두산3대태양을 모신 끝 새해의 희망과 기원을 첫 해 없는 영광안고 주제 100년 돌이에 담아왔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년늘가에 닿았는가. 은구슬, 영의 지평을 여는 21세기 새로운 10년대의 첫 해돋이는 회에서 시작되었는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 정일봉에 희망찬 주제 100(2011)년 새해 첫 아침 신비한 절경이 펼쳐져 겨레를 경탄시켰다.

1월 1일 새벽 장엄한 해돋이의 서곡이런가 초당 30m의 강한 바람은 백가루를 세차게 날리며 백두산투구의 절경을 펼쳐었다. 마치도 이 세상 온갖 불의를 깨끗이 쓸어버릴듯이, 허접스런 모든것들을 말짱 날려보낼듯이 불어친 눈보라에 이어 천변만화하는 백두산일기는 잠잠하고 푸근해지면서 고요한 새벽하늘에 찬란한 해발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새벽이들을 밀어내며 흥보석같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아침 7시 15분경에는 정일봉동쪽하늘가에 태양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개의 큰 무지개가 비껴어 황홀경을 펼쳐었다.

백설의 세계에 물러나 태양과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껴어 황홀경을 펼쳐었다. 국내로 이어질 새로운 10년대에 대한 환희와 긍지, 자

백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는 붉은 태양과 그 태양을 응위 하듯 랑쪽에 큰 원호를 이룬 두개의 무지개. 박 단희

한한 서리꽃바다에 실려 삼천리에 비껴가는 령명한 무지개는 이세대로 절경을 펼쳤다.

백두의 절경을 제일 사랑하시는 민족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찬란한 절경의 새 모습을 펼쳐드린 새해 첫아침 정일봉 해돋이의 장관은 그대로 장군님 펼치시는 통일강성대국의 모습!

자기의 성스러운 해돋이를 간직된 우리 민족처럼 궁지로운 민족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민족의 발원지인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재생의 상징이고 하나로 되는 통일의 상징이기에 우리 겨레의 슬기와 힘, 환희와 긍지,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축복하는 첫 해돋이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백설의 세계에 물러나 태양과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껴어 황홀경을 펼쳐었다. 국내로 이어질 새로운 10년대에 대한 환희와 긍지, 자

백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는 붉은 태양과 그 태양을 응위 하듯 랑쪽에 큰 원호를 이룬 두개의 무지개. 박 단희

과학기술로 만사를 해결하자! 이것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2011년 새해의 첫 진군길에 나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퍼려한 격동적인 호소이다.

현 시대는 모든것이 과학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누구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솟구쳐오를수 있는 비약의 열쇠는 첫째도 둘째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을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보시는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21세기에 상응한 높은 과학기술적도태에서 서있는 강성대국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나라의 과학연구기구를, 과학기술인재육성기지를 끊임없이 찾으시며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온 나라 인민에게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민족자존의 정신력과 최첨단들과의 배양을 북돋아주시며 과학기술인재들이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것,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가치있는 창조물을 내놓기 위한

두뇌전을 즐기차게 벌려나가기도록 고무격려하시는 장군님 이시다.

그나날 그이께서는 21세기의 최첨단공업은 과학자들이 창조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정보산업발전에서 프로그래밍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며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는 프로그래밍개발에서 나서는 기술전문제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때로는 정보산업시대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인재들을 양성하자면 학생들에게 최신과학기술을 원만히 습득시키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는것과 함께 자료보관체

계를 잘 세우도록 해야 한다 시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후대교육기관들에 세계굴지의 전자도서관도 건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공장 하나도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고 현대화하도록 하시었다. 하여 지난해에만도 강동약전기구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풍성식료공장, 천마전기기계공장과 대홍산기계공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선홍식료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기술적성과와 생

산이 밀착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으로 경제성장파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발전을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 지름길로 보시고 여기에 큰 힘을 기울이시는 장군님의 현명함 정도에 의하여 주제섭유인 비날론음이 쏟아져 퍼졌고 주제철 생산체계가 완성되었으 며 CNC기술에서 패권을 쥐는것과 같은 경이적인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다계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과학기술은 오늘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온 나라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손송죽

2010년을 보내면서

작성자: 다물쭈

오랜 인류력사를 보며 우리 배달겨레의 력사를 보면 불멸의 항일투쟁력사가 구체적으로 잘 보인다

따라 이 지구에 그 나라의 주인으로 자주적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은 깨끗한 량심으로 총대를 굳세게 쥘 뿐이다

찢겨죽고, 동강나 잘려죽고, 생매장되어죽고, 불에 타죽고

시인들이 펴낼 살아있는 땅

끓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어 가면서

마음의 고향 만경대

엄청난 매도와 욕설과 폭행과 리간을 가족까지 당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어머님조국을 지킨 위대한 항일투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린 같이 가야 한다고

《지원》의 투철한 정신을 주체사상의 힘을

오늘도 나는 큰 소리로 고향을 친다

선군정치의 힘을 철석같이 믿고

이게 참 진리라고— (남조선의 인터넷홈페이지 실린 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

겨레의 통일의지를 북돋아주는 애국의 구호

새해를 맞으며 발표된 공동사설의 구호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자주통일위업실현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지난 조국통일운동의 경험과 교훈,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기어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 겨레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매우 정당한 구호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전체 조선민족이며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위업이다.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하고있는것도 후대들에게 통일된 하나의 조국을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사명을 지니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흘러온 나날들은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위력이 비상히 강화된 귀중한 나날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사이에서 대방면적인 접촉과 래왕,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벌어지고 북과 남, 해외 3자의 련대연합이 강화되어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불수 없었던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은 이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자주통일은 우리 민족이 살길이며 변영할 수 있는 길이다. 자주통일을 떠나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해방 후 미군이 남조선에 강점한 때로부터 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해왔으며 오늘 까지도 민족분렬의 상처를 가지지 못하고있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강토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것은 국토가 분렬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분렬의 고통속에 반세기이상이나 귀중한 민족적리익과

고나야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는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만들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지난 20세기 중엽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의 력사가 지금 까지 지속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비극이고 수치이다. 조국통일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비록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도도히 전진하던 자주통일운동이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에 직면하고있지만 우리 겨레의 힘찬 자주통일전군은 결코 막을수도 되돌려세울수도 없다. 오늘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맞이한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올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갈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민족중시의 립장, 자주통일의 립장에서 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애국과 애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대결정책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를 우선시하며 시대착오적인 제도통일을 추구하는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남

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요구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하루빨리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에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총적방향과 투쟁과업이 명백하게 밝혀져있다.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민족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총적투쟁방향이다.

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에 총질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에도 공화국은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을 주동적으로 제의하고 성사시키는 등 북남사이의 친애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기운을 고조시키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아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남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원흉인 미국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치, 핵전초기지로 틀어쥐고 조선반도의 통일을 집요하게 가로막고있으며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이에 적극 편승하여 북침전쟁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원흉인 미국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치, 핵전초기지로 틀어쥐고 조선반도의 통일을 집요하게 가로막고있으며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이에 적극 편승하여 북침전쟁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외세에 추종하고 그들과의 《공

체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져나가야 한다.

오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통일을 바라는 모든 민족성원들이 대단결을 이루하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쳐나간다면 이 세상

에 못배일 일이 없으며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앞에서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책동도 맥을 추지 못할것이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결결히 투쟁함으로써 자주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야 할것이다.

김인숙

민족공동의 리익을 찾아야 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개별적계층의 리익이 민족의 리익보다 우선시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온당 자기 몫을 찾아야 하며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굳게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다도제국주의! 불멸불변, 새 세기의 백두장군! 순결청순한 백두의 눈동자에 불라는 혁명의 심장에 불꽃의 새 력사로 밝아왔다

다도제국주의! 반제반전! 신군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맑고히 청산하는 격랑의 새해가 밝아왔다

단군조선이래 두 외세에 민족의 영혼을 판 반역도들 총복중군이 되지 못해 안달부달하는것도 모자라 《전쟁물사》, 《흙수통일》...

우리 민족끼리밖에 없다! 우리 온 겨레의 심장에 만고불변의 진리로 새겨진 우리 민족끼리 이름으로 새 력사를 창조하는 한해로 살자

우리 온 겨레의 가슴에 영원한 조종의 산 우리 민족끼리 이름으로 필승불패, 승리의 한해를 장식하자

우리 민족끼리밖에 없다!

— 2011년 새해 아침에 띄우는 시 —

세계를 기만, 우롱한 사기조작극 《1번》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조지 워싱턴》 핵항모전단까지 출동 시킨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평화의 소총함을 절실, 필박하게 깨달은 우리 민족앞에 전쟁없는 《고려민주련방제》 통일년 2011년 새해가 밝아왔다

다도제국주의! 불멸불변, 새 세기의 백두장군! 순결청순한 백두의 눈동자에 불라는 혁명의 심장에 불꽃의 새 력사로 밝아왔다

다도제국주의! 반제반전! 신군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맑고히 청산하는 격랑의 새해가 밝아왔다

단군조선이래 두 외세에 민족의 영혼을 판 반역도들 총복중군이 되지 못해 안달부달하는것도 모자라 《전쟁물사》, 《흙수통일》...

반민족적, 반통일적언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운동에 재를 뿌리며 6.15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사대매국 인간쓰레기들 우리 민족끼리 용광로에 가차없이 쓸어담는 각오와 결단의 한해가 밝아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를 지배, 점령하려는 만악의 원흉 침략, 방화, 약탈, 살륙의 U.S.A

조지 워싱턴에서 바라코 오바마까지 세계를 피로 물들이고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며 유린하는 인권, 민주, 평화, 자유... 가중스런 전쟁제국 선군백두산앞에 무릎꿇는 세계사적각변동의 한해가 밝아왔다

준엄, 엄중한 새해 아침 백운을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다 천번을 물어봐도 다른 답은 없다

우리 민족끼리밖에 없다! 우리 온 겨레의 심장에 만고불변의 진리로 새겨진 우리 민족끼리 이름으로 새 력사를 창조하는 한해로 살자

우리 온 겨레의 가슴에 영원한 조종의 산 우리 민족끼리 이름으로 필승불패, 승리의 한해를 장식하자



6.15 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련대연합을 강화해 나가겠다

얼마전에 발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는 북남사이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대제안들을 천명하였다. 이보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갈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대화과 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6.15이후 북남관계가 한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었던것도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었기때문이다. 대화와 협력사업은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며 공명적이다. 그 과정에 북남사이에 얽힌 매듭도 풀고 화해와 신뢰도 도모해가며 민

자주통일은 우리 민족이 살길

주요있다. 자주는 우리 민족을 분렬의 고통속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이며 외세의존은 영구분렬의 길, 망국의 길이다. 우리 민족이 반세가 넘도록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지 못하고있는것은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바로 남조선 친미사대분자들의 외세의존책동에 있다.

우리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전체 일군들은 이번 연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들이 북남관계

대화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족의 통일적발전도 이루어 결국은 통일로 나아가갈수 있다. 지난해에 북남관계가 대결을 넘어 전쟁국면으로 치달아 내외의 큰 우려를 자아낸것도 대화공백, 협력공백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실이었다. 지금과 같이 북남관계가 최대로 악화되어있고 전쟁위험이 날로 짙어가는 때일수록 북과 남은 마주앉아 민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력의 상대이지 결코 전쟁의 상대

자주통일은 우리 민족이 살길

조》를 추구하는것은 자기 집을 강도에게 통째로 내맡기는 어리석은 행위나 다름없다. 민족분렬의 력사는 우리 겨레에게 외세에 대한 의존이 곧 파멸을 가져오고 외세와의 《공조》가 민족의 영구분렬을 초래하는 매국배족행위로 된다는 교훈을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

정책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은 민족과 통일, 겨레의 안녕을 우위에 놓고 이번 연합성명이 천명한 애국의 제안들에 지체없이 응대하여 나가야 한다. 우리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신 일군들은 이번 연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들이 북남관계

대화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는 아니다. 이번 발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펼쳐기 위해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들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실현할때 대한 중대제안들이 천명되었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일군들은 연합성명이 천명한 성의있는해의와 초소에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적극 호응해서 서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민족을 위한 통일에국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김경철

새해가 밝아왔다.

7천만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간절한 념원을 안고 맞이하는 예순여섯번째의 새해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웅장이 안겨오는 수도 평양의 통일거리에서 새해의 첫 아침을 마중하는 나의 가슴은 마냥 뜨겁게 설레인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연연히 한지맥으로 뻗어내린 삼천리 강토를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떠오르는 새날의 태양을 바라보는 온 겨레의 가슴가슴도 통일의 명망으로 후둑도 달아오르리라. 어찌 그렇지 않랴. 돌이켜보면 만만년의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오다가 외세에 의해 물로 갈라진 비극의 그 나날로부터 우리 겨레가 맞고 보낸 한해한해는 조국통일의 절절한 념원속에 저물고 밝아온 년대와 년대의 련속이었다. 이해에는 오려나 다음해에

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 보수매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을 짓부시는 과감한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지난해은 투쟁과정을 통하여 7천만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나갈 때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세우는 내외반통일세력의 기도를 산산이 짓부

《전쟁예방접종은 6.15, 10.4선언으로》

지난해 12월 11일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은 보신각에서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라는 명칭으로 된 반전쟁평화대회를 열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로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로총당,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가한

단상

의 조국통일운동력사가 특히는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하고 엄혹했던 지난 한해의 통일운동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애당초 바라지 않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지난해 한해동안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과 대결소동에 광범하면서 립은 외세와의 북침전도발책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고 공화국의 거듭되는 야랑과 선의를

원

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 보수매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을 짓부시는 과감한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지난해은 투쟁과정을 통하여 7천만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나갈 때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세우는 내외반통일세력의 기도를 산산이 짓부

《한국녀성단체연합》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녀성모임》,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 등 35개 녀성단체들도 남조선의 서울 동화면세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반

시고 온 겨레가 것처럼

바라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밝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그렇다. 통일년은 투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앞날을 낙관한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자주통일의 대강이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년임이 실현될 그날도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희망찬 새해를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거족적인 투쟁의 해, 력사적인 승리의 해로 빛내이려는 온 겨레의 불타는 의지와 지향을 담아서인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 아침노을이 붉게 물든다. 본사기자 김유정

도평화회복을 위한 남북대

《6.15, 10.4선언리행》을 추켜들었으며 《우리 녀성들은 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행동과 긴장이 지속되는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프랑카드를 들고 행진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어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험악하게 전진하고있다. 그 기초에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적과제로 내세우시고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실험을 다 기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주제 79(1990)년 8월 15일,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판문점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며 열린 범민족대회는 1948년에 온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이 뜻깊은 대회가 있었지 며칠이 지난 주제 79(1990)년 8월 18일,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을 친히 몸가짜이 불러주시였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조국통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조국을 방문하여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과 만나게 된것을 매

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애국자들이라고, 대표여러분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은 대표들은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사실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 처음으로 범민족적인 통일대회가 열릴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문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당시로 말하면 국제무대에서 예견치 않았던 사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세계정치구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를 기회로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겹쌓이는 시련을 타개하고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주시였으며 그 결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가 진행될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도 범민족대회의 성과로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리러머 대표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면서 대표들은 북받쳐 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온 민족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광복의 정치가, 절세의 위인, 비범한 도량과 숭고한 애국의지를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이 아니시고서야 그 누가 그런 애국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경륜을 내놓으실수 있느냐.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 민족대단결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삼천리강도에는 통일운동의 격류가 세차게 굽이쳤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그러 한 가운데 그해 11월 20일, 마침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망라하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되게 되었다.

범민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과 작관을 굳게 안겨주는 커다란 전환적계기였다.

하기에 범민련의 결성을 두고 남조선의 통일운동가들은 《7천만동포에게 드리는 글》에서 《통일의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있다.》고 뽐어오르는 격정을 피력하였다.

참으로 분렬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제일로 가슴아파하시며 온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대단결위업을 헌신하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계승하여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보다 새로운 높은 경지에 발전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온 민족이 목소리를 합치고 지혜와 힘을 총동원할때 대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 호응해나섬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인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실현해야 할것이다.

한경수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노래의 제목이기 전에 분렬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7천만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산악같이 자리잡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세기를 이어오며 터치는 피라는 웨침이다.

동강나서는 살지 못하는 생명유기체와 같이 돌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이기에 삼천리금수강산 기를튼 우로를 가리치며 분렬의 기마갈뚝이 아 뜨게 박힌 비극의 그 나라로부터 장장 60여년세월 아버지세대, 아들세대, 손자세대로 이어오며 목놓아 웨치는 절규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되어 울려 퍼진 이 노래.

1974년 안창만 작사, 성동춘 작곡으로 세상에 나온 가요 《조선은 하나다》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력사에서 중요한 한페이지가 기록된 1970년대 전반기를 다시금 깊은 추억속에 되돌아보게 한다.

당시 공화국의 폭넓은 협상방침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였으며 마침내 1972년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채택 발표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조국

통일의 밝은 전도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온 겨레는 걱정과 흥분으로 끝없이 설레였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당시 남조선의 통신, 방송등도 《온 민족들의 표정은 남북분단의 장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듯 경악과 흥분속에 휩싸여있다.》고 하면서 거리가 크게 출렁이던 일터마다에서 모든 업무가 중단될 정도이며 1945년의 조국해방의 감격이 다시 표현되

그러나 해운은 아침바다 마냥 풀여버리던 환희와 감격도 잠깐. 미국의 사측을 받은 남조선의 분렬주의세력은 온 겨레의 양양된 통일기세에 겁을 먹고 민족앞에 다진 시약도 백주에 뒤집어놓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들은 《이제부터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대결로부터 대화있는 대결로 돌아섰다.》느니, 《모든 국민이 지니친 려의나 흥분을 가라

는 분렬주의자들의 죄악을 준벌하 단죄하라는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려사의 물음앞에 누구나 통일의 한길에 펼쳐나서는것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당시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62(1973)년 6월 23일 분렬주의자들의 꾀변에 타격을 가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위업 실현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

놓기 위한 길을 명시한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밝은 심과 작관을 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펼쳐나섰다.

이런 격동적인 사실은 노래의 3절가사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단결하자 조선민족아 통일의 문을 열자
혁명의 래양을 따르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수령님 밝혀주신 5대강령 해를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노래가 나온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갔다. 하지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무력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밝힌 우리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이다.

1970년대에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한 립장과 태도가 그리 한것처럼 오늘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실현해나가는 길만이 참다운 통일의 길일수 있는것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이 땅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반통일, 반민족행위이다.

노래는 지금도 7천만겨레의 가슴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려사의 물음앞에 겨레여 통일의 한길로 나서라.

본사기자 윤현주

노래에 비친 겨레의 통일원력 《조선은 하나다》

대결의식을 버려야 한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자국하는 온당치 못한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신년특별연설》에서 그 누구의 《도발》이니, 《평화에 대한 큰 위협》이니 하며 동족을 걸고 있는데 이어 통일부 장관도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지속》과 《북의 바람직을 변화유도》에 대해 떠돌아다녔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그 책임을 북에 전가시키며 새해에도 온 겨레가 규탄하는 동족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가는 기도를 드러낸 불순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북남관계가 분렬사상 있어본적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은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에 있다. 극도의 대결의식과 《흡수통일》야망에 사로잡힌 보수당국은 지난해 정초부터 《통일대계탐색연구》와 같은 오막작본을 들고나와 북과의 체제대결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위험천만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1년내에 광란적으로 벌여놓았으며 나중에는 북의 코앞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강행하여 연평도사건과 같은 엄중한 도발사건까지 일으켰다.

이 모든것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누가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는가를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지난해의 엄중한 사태에서 내외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대결상태의 종식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대한 문제로 나서는가 하는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결이 지속되고 격화되던 총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지 그속에서 피해를 볼것은 우리 민족뿐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새해공동사설에서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 정당한 애국의 호소는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도 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새해에도 동족대결의 낡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도발적연행만을 일삼고있다.

남측이 아직도 그 누구의 《진정성》이니, 《태도변화》니 하고 외위대고 있지만 태도를 바꾸어 동족의 진정성있는 대화제의를 시급히 응해나서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남측이다.

남조선당국은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의 위기를 해소하고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이룩할데 대한 공화국의 정당한 제의에 응해나와야 한다.

전덕성

날로 무모해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있다. 방위상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정부인물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무기수출3원칙》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떠들고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당국의 무모한 군사대국화책동, 제침야망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일본의 집권세력들이 《무기수출3원칙》의 수정을 운운한것은 미국뿐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무기기술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여 《자위대》를 최첨단군사장비로 무장시키고 군사적해외팽창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정부는 1967년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당사국 등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무기수출3원칙》을 내놓았으며 1976년에는 이 《원칙》의 적용대상국들을 확대해 무기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대한 내외의 우려와 경계심을 늦추고자 이 이른바 《평화국가》의 명세를 피우며 그 병풍뒤에서 판장을 보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였다.

실지로 일본은 지난 기간 미국을 《무기수출3원칙》대상에서 빼놓고 그들의 무기

기술협력적 적극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전투기(F-35)와 해상배비형유격미사일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나섰다.

이런 수법으로 일본은 미국의 고도무기기술을 수없이 획득하였을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은 《자위대》를 최신무기로 장비시켜왔다.

오늘 료상 《자위대》는 10여개의 사단병력에 최신전투장비를 갖춘 지상실전무력으로, 해상 《자위대》는 보다 현대적인 함선들을 가진 해상작전무력으로, 항공 《자위대》는 최신형전투기들을 보유 한 공중기동타격무력으로 되었다.

오늘날과 와서 어벌이 커질 대로 커진 일본은 형식상으로나마 표방해오던 《무기수출3원칙》의 허울마저 훌렁 벗어던지고 《자위대》를 더욱 더 현대적인 군사장비로 무장시켜 해외침략을 노린 군사대국화책으로 출몰을치려 하고있다.

참된 삶의 좌표를 안겨주는 고귀한 지침

인간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값있는 삶, 사람들의 추억속에, 후세의 기억속에 오래 남는 참된 삶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런 삶은 기다리거나 바란다고 하여 차체지는것이 결코 아니다. 참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고 그러한 삶을 빛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보람있고 값있게 산다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참된 삶의 좌표를 새겨주는 이 명언에는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뗄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에 헌신하는데 개인의 참다운 삶도 있다는 고귀한 뜻이 담겨져있다.

민족은 피륙과 언어, 문화와 지역의 공동성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고고성을 터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민족과 끌어내야 풀을수 없는 혈연의 끈을 맺는다. 태어난 첫날부터 인간의 유기체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것보다 더 진하고 그 무엇보다도 없었던 것은 민족의 진한 피가 흐르게 된다. 이와 함께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자기 민족의 문화를 섭취하면서 민족의 한 성원,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어나가게 되는것이다.

사람들은 오랜 역사적기간 나라와 민족이라는 케투리안에서 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왔다. 사람의 참된 삶의 가치는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존엄을 빛내는데 있으며 그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며 요람인 민족과 자기의 운명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킬 때에만 가능하다. 민족을 떠나서는 그가 누구든 존엄높은 삶의 가치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돌로 갈라진 오늘 우리 민족성원들이 자기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 정하는가 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분렬의 비극을 지속시키느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의 민족이 돌로 갈라지는 가 아니면 반만년의 유구한 려사를 자랑하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명맥을 다시 이어나가는 가 하는 문제이다. 조국과 민족이 있고서야 개인이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바로 민족성원모두의 운명과 관련된 사실적인 문제이다.

더우기 북남관계가 첨예한 대결상태로 치닫는 지금 조선사람이라면 모두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의 길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라의 통일은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정경과 신앙, 주의주장을 뛰어넘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성취할수 있는 거족적인 위업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개인의 학락과 안일만 추구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시대의 락오자가 되어 민족의 버림을 받는 신세를 면할수 없다.

정경과 주의주장만을 고집하면서 민족내에 불신과 반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합을 저해하는것 역시 민족의 리익을 저버리고 당파와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자신을 새워 놓고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투쟁하느냐 아니면 민족을 떠나 외세에 의존하고 굴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것은 자주적인 인간의 삶은 삶을 누리는냐, 조국과 민족의 버림속에 영원한 치욕을 당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누구도 민족을 떠나 참담하게 살아갈수 없다는 것이 려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며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길에서 민족성원들의 삶을 빛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뚜렷이 가르쳐주는 고귀한 지침, 시대의 금언이다.

조성된 오늘을 사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과 정경, 신앙의 차이와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야 할것이다.

정학준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남녘의 민심

남녘의 각계층에서 자주통일의 기치, 민족번영의 리니라 평화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청년련대》와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을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은 당국이 새로운 군사적충돌을 막아올수 있는 조치들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대학생단체들은 조국통일의 근본원리는 남북공동선언들의 리해와 대화를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하면서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수호를 위한 대학생실천단》을 구성하고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밖에 진보련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찾자고 하고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사이 리해와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30여개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바라는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는 당국이 군사적대관계의 종식,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안들이 명시된 남북공동선언들에 기초하여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리명박 《정부가 무너져무너져 교체하고 전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데 대해 밝히고 군사적대결소동의 중지과 북과의 대화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비롯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리명박 《정부》가 남북공동선언들의 리해를 거부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연습 모습

